

지역맞춤형 일자리 교육 및 매칭지원에 관한 연구

박병수*, 한미옥**

*강원도립대학교 건설지적토목과, **LOCUS
e-mail : claynsand@hanmail.net

A Study on Locally Customized Job Education and Matching Support

Byung-Soo Park*, Mi-Ok, Han**

*Dept. of Civil Engineering, Gangwon State University, **LOCUS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학이 대학-자치단체-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내 맞춤형 일자리 교육과 청년 커뮤니티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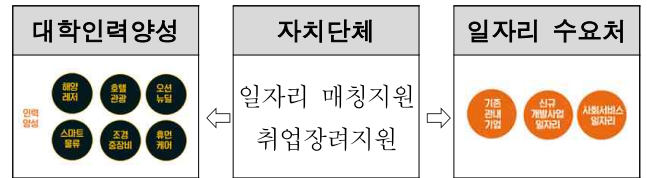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이른바 3대 인구 리스크(위험요인)가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출산을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별로도 인구대책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지역맞춤형 일자리 교육과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2. 지역맞춤형 일자리 교육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 대응을 위하여 청년 및 신 중장년이 지역 내 정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 내 개발사업과 연계한 인력 수요에 대비한 지역특화 분야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HiVE 사업 등)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치단체는 관내 19세 이상의 취업희망인력 및 관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양성된 인력에 대한 일자리 매칭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매칭전담창구 운영이 있을 수 있으며 관내 기업 취업시(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지역인재 채

용기업에게 월 임금지원 등의 기업인센티브 지원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림 1] 대학-자치단체-산업체 연계

한편, 지역 내 청년들의 적극적 자발적 활동을 격려하고 청년 간 네트워크 강화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역 내 활동기간 마련과 정착 동기 부여 제공을 위하여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천년센터 강동오랑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과 같이 청년 커뮤니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비와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활동 기간 중 월 1회 교류회를 통해 청년 커뮤니티 간 정보 및 인사이트 공유 및 커뮤니티간 협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지역 내 일자리 연계로 지역정착이 유도될 수 있고, 지역 내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매칭을 통한 지역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박병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구용역”, 2022.09